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베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자기뿌리 믿으면 자유자재 할 수 있어

15면에서 계속

해서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는 '잘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만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고(苦)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만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될 수 있는 것인지 큰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 아닌 내가 있어 해결

스님: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해결을 할 시에는 주인공한테 '해주시오' 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잘 해야지, 잘 해야잖아. 이걸 해결해야잖아' 이렇게만 해도 그것이 진짜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틀이 아닌 까닭에 그런 거야. '주인공, 해주시오' 하면은 벌써 틀이 되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야잖아!'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거를 세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잘 모르고, 두번째도 '그렇게 되는 이치는 있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 또 세번째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된다. 안되는 게 어딴지?' 이런 사람이 있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벌써 그렇게 '이거 해결해야지' 할 때는 내 아닌 내가, 내 아닌 내가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면서 힘이 없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결부돼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투입이 돼서 전부 어떻게든 들려지게끔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으니깐 하는 거지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뇌에서 나오는 파장을 가지고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을 동작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동작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형광등과 같은 전등, 텔레비전, 장난감, 전자자동차를 작동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켜진다' 라고 하면은 텔레비전이 켜지는 식인 것입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장치, 뇌파통제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마음 속에 투사되는 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신호를 포착해서 전선을 통해 통역장치로 전달되고 여기서 신호를 다시 키운 다음, 다시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자제품을 동작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가장 믿음만 하고 관동이 가능한 뇌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뇌파라는 것이 한생각에서 비롯된 전자의 덩어리라는 것과 생각에 따라 뇌파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 정말 생각에 따라 천차만별로 입자들이 들고 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기사의 내용만 봐서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만 한생각이 눈에 보이게끔 발현되는 마음법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통신이 되는 도리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 일면을 볼 수



그림 · 최주현

니만 애타서 관하고 다니는데 가설이 돼야 붙어 들어오지. 가설이 되지 않으면 붙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러면 과거의 차원이 어떻게 살던 차원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느냐?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부모도 자기 탓이고 자식도 자기 탓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성들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그냥 생각해서 말하지. 만약 이 영령으로서 감히있는 몸이라면 아무리 내가 할 양으로 고심을 해도 그게 능력이 오르지 않아요. 남보다 더 잠을 안자고 된다 하더라도 그게 능력이 오르지 않는 거야. 도무지.

그럼 부모가 정성을 들이면, 알른 쉽게 말해서 감히있는 사람을 보석금을 내고서 배내오는 거와 같은 거야. 보이는 데에 붙어 아닌 바로 영령을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관하고 그렇게 가면서 조그마한 일, 이렇게 경함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내 아들을 내가 배내야지 안 되겠구나!' 스님네들이 아무리 계시도 감히있는 걸 배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뺏아갈 것도 없고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배내오는 거 같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왔으니깐 애긴데 어떤 부모들은 말이지. 그 집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스리고 살 만한 집안에서도 돈이 아까워서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사람이니깐 이거를 알른 쉽게 말해서 보석금을 내고 아들 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리따워서 그거는, 그걸 가지고도 태산같은 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해는 없지. 주되 이자가 조금 붙어 들어가게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야.

전진도 후퇴도 모두 범

원주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계급이 대위인데 애들이 일곱이야. 그러니 합해서 아홉 식구지?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그 치마를 덮어 쓰고선 밥벌 떨어, 애들 밥도 못해주고 항상 그릇하고 있으니까 집 팔아서 다 넣고 그랬는데도 영 낯질 않는 거야. 언젠가 원주에 신도집일 갔는데 손가락에 실반지 하나 끼 거하고 사탕 한 봉지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 집사람 좀 어떻게 고쳐서 애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 남자가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집 식구가 이복에서 치마를 덮어 쓴 채 총살을 당했던 말이지. 그런데 그거 사탕 한 봉지 가져온 거 가지고 그 조상들을 다 천도 시켜서 배내줄 수 있겠어? 배내줄 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줬어. 그건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아들 이었다면 어떡하겠니?' 그랬어. 내가 날더러. 누구냐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 자식이라면 사랑 한 봉지를 안 갖다줘도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바쳐서 할 거란 말이지. 안 그래?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가 빠져죽더라도 그냥 깨달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런 심정으로서 그거를 해결을.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했다가보다 그대도 저절로 된 거지. 그래서 나왔어. 나아서 다니니까 그 반지는 도로 쫓겨. 왜냐하면 내가 그 반지는 해서 될 해. (대중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사랑 한 봉지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 입으로다가 할 수도 없이

내탓으로 돌려 관할때 쌓인 업식 무너집니다

체가 있다면 할 수가 없지. 체가 있는 몸뚱이는 부지런히 뛰고 체가 없는 참자기는 부지런히 해결하는 데에, 즉 몸무로서 공법으로서 즉, 그 해결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갈려면 모두를 격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봐. 지금 불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안되나?' 이러지? 어떤 경우가 다행이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것도 아니야. 모든 지 한도량에서 일체제불의 마음이 그대로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야. 즉 말하자면 부처님들의 집이지. 부처님들의 집을 부처님들이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때 벌써 그걸 믿으니까 '이거 해결해야잖아' 하는 거 아냐? 믿으니까. 믿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자기 뿌리니까, 알른 쉽게 말해서 이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 안에 운전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신계로 발전을 할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소? 하하하하. 그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심국이 웃고 남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래도 여기서 심국이 웃고. 그거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 심국이 웃소.

질문자(남): 큰스님 안녕하세요. 안양 본원 청년회 김정명이라고 합니다 항상 어떡하든 저희들에게 주인공 도리를 좀더 잘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마음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큰스님과 여러 청년 법우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일간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한생각이 법이 되어 굴러가는 도리. 물질과 마음이 둘 아닌 도리가 세간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더욱 심지를 굳히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허허허. 그런데 그 목적이 내기 정신계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람의 마음이 관하는 거, 진짜 믿고 관한다면은, 모든 일거수 일투족 그놈이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대보로 통신이 된다고. 대보로 통신이 될 때 오신통이라는 거 내가 얘기하지? 오신통 그것이 정수에까지 입력이 되게끔 보조를 해요. 그것이 다 보조원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수에까지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는 정신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가 천 개로 화할 수도 있고 만 개로 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물건을 연구하는데 어떤 자리에 놓여있어야 된다. 어떤 자리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부속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까지도 다 거기서 설계가 나오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휴, 그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웁지.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전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단을 베풀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대 차원의 능력도 가져올 수 있던 말이지. 그렇게 한 가지씩 가지고 몰두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지. 그러나 한 가지를 연구했는데 그 한 가지를 연구해내면 또 그 식으로 해내서 또 한 가지를 연구할 수도 있거든. 자꾸

거기서 풀려나오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해라. 이 공부를 해라' 하는 거라구.

내가 말하기를 땅에서 에너지가 없어서 못살게 되면 허공에서 에너지를 꺼내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계의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 깨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깨어 쓸 수 있다. 차원이 높아지면 깨어 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몇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 지구의 생명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 연구해 내는 사람도 그거를 하나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도 무척 발전이 되고 세계적으로 겨우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적든지 크든지 연구를 한번들 잘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나? 문 없는 문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알아서 현재 해나가는 일이 전부 연구 대상이 되란 얘기지.

문없는 문부터 알아야

질문자(여): 본원 청년회 합창단의 한정희입니다. 우선 제 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신 큰스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는날 제가 선원에 오면서 항상 그렇듯이 합창을 하고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올리는데 어떤 날은 큰스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스님 저 왔어요' 라든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올리

고 앉아있으면 제가 어떤 날은 부처님께 떼쓰는 모습도 있고 또 부처님께 제 스스로 인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부처님 저 왔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깐씩 짹짹 놀래요. '아니, 틀이 아닌데, 하난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머리로는 알

아들었는' 하면서 한생각 다시 놓고 돌

리고 말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큰스님, 가르침을 구합니다.

스님: 우리가 틀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에서 몇 천 몇 만이 될 수도 있고 몇 만이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셋으로 될 수도 있고 다섯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자재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으면 내가 인사를 한다 해서 들인 거 아냐. 이 거죽의 모습은 틀이었지만 마음은 항상 '주인공' 하면은 벌써 한데 합쳐지는 할나거든.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그냥 알게 되면 주인공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도 일 할 거 일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이 보지 못하는 거니까 힘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보는 사이없이 봤다. 이 소리가. 그래서 보는 것도 부처님계산 도가 아니라 그랬으니 그건 무엇에도 쓸 거나. 우선에 봐야 먹지. 하하하.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보는 것 뿐이야. 하기 위해서 듣는 것 뿐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서 온 거를 알아야 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알게 알아야 된다고는 얘기지. 내가 이를 할 법을 여기다 두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목마를 때 어떻게 잤다 먹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면서도 눈이 안보이면 죽었는데, 속눈이 안떨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본단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틀이 아니기 때문에 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알아서 그것이 자유스럽다. 오신통이 즉 보조원이죠. 보조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조원이구요.

질문자(여): 대구에서 온 조명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부처님전에 바치더라도 그것이 기복이었던 공덕이 없다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입합격을 위해서 부처님전에 돈을 바치고 기원하는 것은 그런 기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 우리가 공부하다 된 사람같으면 그것도 저것도 다 없어도 돼. 그러나 자식은 관할 줄도 모르고 고집이 세어서 어머

'나'나 '남'이 하는게 아닌 일체제불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자기네를 위해서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틀이 있는데도 어떤 때는 조그만치 넣어가지고 와서 태산같은 집을 배내라 그러거든. '스님, 마음 좀 내셔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들고 있으면 또 '아이,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하는 게 태산같은 거라. (대중들 웃음) 그것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돼서 한데 합쳐 줄래도 무의 법에 의해서 그 마음이 아리따움질 못하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버선목에 감춰가지고 있던 그 돈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참, 절반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정성을 들인다면 그 마음이 아리따워서 참치릴텐데, 숨겨놓고 아까워서 안 내놓고 그 부스레기 돈, 쓰다 남은 거 그냥, 헌 돈이든 새 돈이든 아랑곳없이 그냥 갖다가 놓는 거는 그게 정성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언젠가 내가 가난하게 장사하는 집더러 한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단 천원이라도 좋으니깐 장사를 해서 조금 벌으면 그 새 돈으로 모자라, 조금씩 모아서 올 때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너의 정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원을 했으면 2천원 3천원은 거기 이자로 붙여 들어간다.' 그런 말한 예도 있었어. 거저는 없거든. 사람들이 만약에 5만 원을 가져왔다 이런다면 15만원을 불러서 출자언정 손해가 나겠어? 자기가 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지. 또 이런 경우가 있지. 그 가정에 딸 식구는 다 기독교를 믿고 만자식이 제사도 안지내기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단 돈 3만원을 가져와도 그건 아리따워서, 딸 사람이 다 안지내는 제사를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제사를 지내겠다는 부모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그러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남자가, 이상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잘 지내다가 이제 아프지 않으니깐 내가 알고 그래서 집을 한 채 사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내가 인제 왔다가, 그랬더니 이리저 나를 찾아왔더라구. 그 래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와서, 남편 진급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거죠. 인제 살게 됐으니깐, 그대 정성을 들이고 갔어요. 웬 사흘을 정 들이고 가더라도,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오더라구.

그랬더니 '이이구, 우리 남편 정성을 들였는데 승진도 안되고, 딸 사람이 승진해서 월급 갔다고 그러더라 말이지.' '우리 아반 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것도 법, 떨어지는 것도 법이니깐 그대로 알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가더라도 근 일년간이나 있다가 왔어요. '어휴! 스님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가 잘 갖다가 딸 사람이 가서는 죽었어, 죽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후회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 이러니깐 걸리지 말고, 전진을 해도 걸리지 말고 후회를 해도 걸리지 말라. 그러면 사는 도리가 생긴다. 참, 이거 묘법인데...

이 세상은 내가 하지 않고는 내 행복을 내가 찾지 못해. 그러니 잘 닦든지 못 닦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게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야. 꼭 그렇게 알고 울지 말고 밝게 열심히 살아요.

*위 법문은 1997년 1월 5일 제6회 전국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짜로 인위를 보듯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1 288쪽
 값 6,000원
 저서이름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